# ‘신비한 동물사전2’ 속 불교 캐릭터는?

## 한국배우 수현 분한 ‘내기니’, 부처님 수호신 모티브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와 영화 ‘해리포터’ 사이에는 어떤 불교적 연관성이 있을까. 티베트불교 지도자 페마 초드론이 한때 해리포터 시리즈의 ‘protagonist’를 ‘초발심 불자’로 일컬은 적은 있으나, 사실 많은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곧 개봉을 앞둔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2’에 흥미로운 불교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전언이다.

불교 언론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신비한동물사전2(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역(役) 중 한국배우 수현이 맡은 내기니 역할이 불교 전설과 연관 있다고 11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비한동물사전2는 파리를 배경으로 전 세계 미래가 걸린 마법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내기니는 극중 에즈라 밀러의 친구이자 저주를 받아 뱀이 되는 역할이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고편이 공개된 직후 내기니 역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내기니는 앞서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등장인물 볼드모트가 데리고 다니는 큰 뱀이었는데, 내기니를 인간이 연기하는 것이 ‘해리포터’ 세계관을 뒤흔든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내기니는 원작과 영화에서 그동안 뱀으로 묘사됐으며, 인간이라는 복선도 사실상 없었다. 특히 아시아인 배우가 이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컸다.

**‘해리포터’ 스핀오프 성격 영화**
**내기니 役 성격에 논란 일어**
**JK롤링 “불교 전설에 뿌리 둬”**
**11월 14일 국내서 개봉 예정**

이에 저자인 JK롤링은 20년 동안 비밀에 부쳐왔던 내기니의 이야기가 사실 불교 전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JK롤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기니는 ‘말레딕투스(Maledictus, 짐승으로 변하는 저주를 받은 사람)’다”라면서 “날개가 달려 있으며 반인반사(半人半蛇)로 묘사되는 신화적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배우인 수현이 내기니 배역에 발탁된 것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는 자바족(Javanese), 중국인, 베타위족(Betawis) 등 수백 개의 인종으로 구성된다”고 옹호했다.

즉 불교 전설에 나오는 여자뱀신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나가(Naga)로 불린다. 석가모니 부처님 설화에서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할 때 미물 또는 잡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준 신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불상 뒤편에는 뱀 형태의 신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힌두교 설화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배우 수현이 맡은 내기니는 극중 에즈라 밀러의 친구이자 저주를 받아 뱀이 되는 역할이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한편 영화 ‘신비한동물사전2’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핀오프인 ‘신비한 동물사전’의 후속 작품으로, 11월 14일 국내 개봉 예정이다. 에디 레드메인, 캐서린 워터스턴, 앨리슨 수돌, 댄 포글러, 주드로, 조니뎁 등 유명 배우들이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캄보디아 불교지도자 “남중국해 중국 것”

## 베트남 대립 인식… 정치적 발언에 누리꾼 지적

아시아의 지중해로 불리며 영해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 캄보디아 불교지도자가 중국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니프티 뉴스’ ‘리코드 차이나’ 등의 언론은 캄보디아발 소식들을 인용해 문제가 된 발언을 전했다.

10월 31일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서 12개국의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해 불교 원탁회의’서 캄보디아의 상가라자(sangja raja) 부어크리(Bour Kry) 스님은 “남중국해 지구는 중국의 영토다. 캄보디아 정부와 불교계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해 불교 원탁회의는 심천시에 소재한 흥법사(弘法寺)가 중심이 되어 남중국해를 해안으로 하는 나라들과 관련국의 불교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다. 이번이 3회째인 원탁회의는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조화,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어크리 스님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와 세계평화를 위해 막대한 노력과 공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 지역과 관련된 많은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불교국가이다. 불교와 사회각계의 의견을 결집해 분쟁을 해결하고, 남중국해의 조화와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국을 방문한 상가라자 부어크리 스님. 사진출처=신화통신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 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베트남과 대립해 왔다. 프랑스에서 독립한 후로는 베트남에 대항하기 위해 친 중국 전략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부어크리 스님 발언에 대해 베트남 등 타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이 발언이 퍼지면서 “캄보디아 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상가라자의 발언으로 적절치 않다” “정치적인 발언을 불교최고지도자가 하는 것은 문제”라는 등의 누리꾼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 틱낫한 스님 고향으로 돌아가다

## “남은 시간 스승 · 제자들과”
## 92세 고령, 건강회복 주력

베트남 출신의 세계적인 선승(禪僧)이자 평화인권운동가로 유명한 틱낫한 스님(92)이 베트남으로 영구 귀국을 결정했다. 지난 11월 2일 ‘라이언스 로어’ ‘베트죠 뉴스’ 등 불교계 언론과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스님의 귀국을 대서특필했다.

틱낫한 스님은 1942년 출가한 이래 불교에 입각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참여불교 운동을 이끌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서 반전운동을 이끈 경력으로 베트남 정부에 의해 귀국 금지조치를 당했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한 이래 세계 각국에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쳤다.

베트남 정부의 귀국 금지조치가 풀린 후로 해외에 머물며 포교에 힘쓰던 스님은 지난 2014년 가을에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 그 후 집중치료를 받아 상당히 회복됐지만 여전히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 최근까지는 태국에서 요양에 힘썼다.



다낭에 도착한 틱낫한 스님. 사진출처=스푸트니크 베트남

스님은 이에 제자인 틱삭꽝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 “남은 나날을 스승과 제자들과 함께 보낼 때가 왔다”며 영구 귀국을 결정했다. 스님은 편지에서 “은사스님께 부탁받은 참여불교의 사명을 70년간의 활동을 통해 베트남 불교계와 세계에 전했다. 이제 내 생의 수레바퀴가 멈추어 간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몸이 다해가는 나날을 뚜 히에우에서 보내기 위해 베트남 귀국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뚜 히에우는 틱낫한 스님의 출가본사다. 틱삭꽝 스님은 “틱낫한 스님께선 뚜 히에우에서 큰 일정 없이 조용히 요양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은 10월 26일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해 중순 잠시 방문한 이래 1년 만에 영구 귀국하게 됐다. 공항에는 틱삭꽝 스님을 대표로 많은 베트남 사부대중들이 틱낫한 스님을 맞이했다. 스님은 당분간 다낭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후 뚜 히에우로 돌아갈 예정이다.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과 일화를 책으로 엮은 베트남 학자 누엔 닥쏸은 “베트남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어 한다. 스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스승과 제자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신 것”이라며 “스님의 귀국 의의는 매우 소박하며, 정치적, 종교적 의의를 두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 ‘태국 재벌’ 레스터시티 구단주 불교식 장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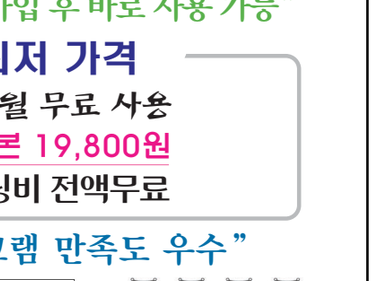
## 프리미어리그에 ‘불교 명상 훈련법’ 도입해 성과

영국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FC 구단주인 위차이 시왓다나쁘라파(60)의 장례식이 태국 방콕의 한 사원에서 불교식으로 치러졌다고 11월 3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시왓다나쁘라파는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그는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끝난 후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킹파워 스타디움 인근에서 추락, 당시 4명의 동승자 모두 사망했다.

태국 재벌로 알려진 그는 2부 리그인 챔피언십리그에 속해있던 레스터시티를 2010년 인수한 후 ‘불교’를 접목한 구단 운영 행보를 보여 주목받았다. 태국 승려를 데려와 개보수한 홈구장 개장식을 치르는 한편, 선수들에게도 불교 명상 훈련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운영 방법으로 2016년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거머쥐어 큰 화제를 낳았다.

장례식은 생전 불심이 깊었던 고인의 유지에 따라 사찰에서 불교식으로 치러졌다.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일가친척 및 태국 고위 정치인들, 레스터시티 소속 선수들, 프리미어리그 축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차이 시왓다나쁘라파 생전 모습. 사진출처=레스터시티

레스터시티 주전 공격수 제이미 바디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우리는 한 가족과 다름없었다.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디프시티전을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구단주의 생전 철학과 배치된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